

濟州島研究 제14집(1997), pp. 19~33

<특 집 : 제주학의 과제와 방법>

濟州學 : 왜 어떻게 할 것인가?

전 경 수¹⁾

I. “島 研究”에서 “學”으로

1975년 가을 대구의 영남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제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몇 분들이 모여서 제주에 관한 연구의 모임이 필요하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기초로 1978년 봄, 민속학, 국문학, 고고학, 인류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모여서 濟州島研究會를 창립했다. 그때부터 연구발표회가 지금까지 지속되었고, 1984년부터는 전국학술대회를 시작으로, 그것을 기폭제로 하여 매년 학술지 형식의 정기간행물이 <濟州島 研究>라는 이름으로 발행되어 현재 14호가 발간 직전에 있다.

제주도연구회가 창립되었을 때, 두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제주와 서울에서 각각 표출되었다. 첫째, 제주에서 표출되었던 것은 연구회가 사용하는 제주도의 “道”자가 아니고 “島”라는 것이었다. 왜, 제주도가 엄연히 濟州道인데 濟州島라고 쓰느냐 하는 질타였다. 행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주도는 濟州島에서 濟州道로 승격했다. 그런데 왜 연구회를 조직하면서 거꾸로 강등시키느냐 하는 불만이였다. 당시 道를 쓰지 않고 島를 쓴 이유는 행정적인 차원의 제주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적인 것의 특징을 살려서 제주를 개념화한다

1)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면 島의 이미지가 더 강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道 研究”가 아니라 “島 研究”의 모임이 되었다.

서울에서 나온 불만의 반응은 왜 제주도를 연구대상으로 삼느냐 하는 내용이었다. 제주 출신으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주로 말씀하신 반응이었다. 당시 연구회의 본부는 서울에 두기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에 계신 제주 출신 인사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회상된다. 당시 연구회를 창립했던 주역들이 주로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자들이었던 점이 암시하듯이 이들에게 제주도는 연구 지역으로서 寶庫이자 “표본 사회로서의 (인문 사회 분야의) 학술적 가치”(張壽根 1984: 8)를 지녔다. 그것이 연구회가 결성된 주 이유였다. 연구할 거리가 많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연구를 위한 집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연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불쾌하게 생각했던 제주 출신 인사들의 이유는 지극히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관찰되는 것을 싫어한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 자체가 싫은 것이다. 쳐다본다는 문화적인 행위 자체를 반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집단을 이루어서 나를 또는 우리를 쳐다보려는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에 지배되어서 연구회의 결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했던 것은 제주에서도 동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濟州島研究會의 초창기에는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濟州道에서도 동참율이 저조했던 것 같다.

인문·사회분야에서 제주도의 학술적 가치를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임에 이어서 제주도연구회에는 점차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가세하게 되었다. 제주도의 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연구자들이 생물학에서부터 해양학 그리고 지질학에 이르는 관련 전문가들이 연구회에 동참하였고,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자연과학 분야에서 연구회를 주도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연구회에서는 그 동안 일곱 분의 회장을 모셨는데,

그 중에서 자연분야에서 두 분이 회장을 역임하였다. 제주도라는 지역의 특성은 인문·사회과학분야에 의해서만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 분야의 적극적인 연구에 의해서 심도 있는 제주도 이해가 가능해졌다. 특히 제주도에서 밝혀진 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편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환경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적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분야에서 보편성의 경향이 보인다는 것은 그 연구의 과정과 결과가 다른 학문분야에 의해서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기초가 되어서 연구회는 회원들의 바람과 희망을 기초로 하여 '제주島研究회'에서 '제주學회'로 명칭을 바꾸고 제주연구를 향한 질적인 도약을 할 준비를 하였다.

II. 왜, 濟州學인가?

과학적인 질문의 기본은 “왜?”와 “어떻게?”이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반복해서 진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의 과학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제주라는 지역에 국한하여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

제주학이란 것은 제주라는 지역에 관한 학문이라는 입장을 천명한다. 그렇다고 해서 제주학이 하나의 學(discipline)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이라는 준거틀을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한 의문이 있다. 현재 상태에서 안전한 방안은 지역에 관한 학이란 것은 하나의 觀點(perspective)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전경수 1990), 즉 지역을 보는 관점으로서 지역학이라는 준거틀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전통적인 학문분야의 틀을 고용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이라는 삼분체계를 지역에 적용하자는 의도다. 전통적인 학문에서 부분적으로 분리되었던 학문분야의 경계가 지역이라는 현상에서

는 통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지역학의 특성이자 곧 전통적인 학문분야의 성격과는 다른 점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환언하면, 제주학에서는 “제주인문학”과 “제주사회과학” 그리고 “제주자연과학”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그러한 구도로 진행된다면, 지역학은 학문이 지향하는 보편성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 지역학에서는 특수성에 관한 논의가 먼저 축적되어야 하며, 그러한 과정과 결과의 축적에 의해서 보편성으로의 행진이 가능한 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수 있는 순서를 밟아야 할 것 같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일이기도 하다.

제주라는 지역의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제주학의 성립 이유다. 학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理解’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왜 제주학이 성립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제주학은 시도가 될 수가 없다.

이 시점에서 제주학의 존재를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여건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중앙”에 대한 “지방”으로서의 제주라는 인식들은 중앙 중심의 사고다. 제주의 문제는 언제든지 중앙의 문제이자 곧 제주의 문제는 중앙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구도다. 따라서 제주 자체에 대한 이해가 가져오는 결과보다는 중앙과의 연결 속에서 제주의 문제는 이해되고 해결되는 것이 쉬운 과정이었다. 중앙에 투영된 제주만이 존재하는 것이지 제주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허상인 경우가 많았다. 변방은 변방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변방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변방에 대한 이해 노력보다는 중앙에 대한 이해 노력이 현실적으로 더 긴급한 문제였다. 중앙통제하의 지방으로서 제주는 그야말로 변방의 濟州“島라”는 인식이 깊었다.

지방이 중앙을 경유하지 않고 세계와 직접 만나는 구도가 마련된 상황을 우리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결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미 제주에서는 역사적으로 특이한 경험이 있었다. 당시 세계체계의 중심이었던 원나라의 몽고 군대가 약 백년간 고려를 식민지화했을 때,

원나라라는 세계의 중앙이 고려의 중앙인 개성을 배제하고 직접 제주와 거래를 한 적이 있다. 개성의 쌍성총관부와 대등한 지위의 탐라총관부를 제주에 두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 시대의 지방에 대한 인식은 중앙통제하의 지방에 대한 인식과는 전혀 다르다. 이제 제주에서는 제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시점에 왔다. “지방화는 그 지방 스스로가 그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다(조창현 1996: 14).” 중앙통제 구도에서 세계 개방구도라는 상황 변화가 제주로 하여금 제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하는 숙제를 남기고 있다. “국제화에 대응하는 가장 적실한 전략의 하나로서 지방화의 과제로서 부산의 논리를 정립할 필요에 의해서 부산학연구라는 새로운 학문적 인식의 전환(김성국 1995: 45)”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지역학 성립의 당위성으로 인식된다.

여건 변화가 제주학의 존재 당위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의거해서 우리는 제주학 성립의 본질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제주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제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요구에서 발흥한다. 세계화 구도의 열린 세상에서 제주도에 대해서 바깥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제주도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제주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다. 제주를 대변할 중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近過去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중앙의 존재는 제주를 어렵게 만들뿐이다. 제주는 이제 과거의 중앙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해야 할 상황에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를 알아야 한다. 제주를 볼 수 있는 거울을 만드는 작업이 제주학을 닦는 일이다. 제주학이란 제주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준거 틀인 셈이다. 제주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여타 지역의 특수성과 조우할 수 있도록 기틀을 준비하는 것이 제주학 존재의 시대적 요청이다.

Ⅲ. 濟州學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이십년 정도의 “道 研究”를 회상해 볼 때, 연구의 특성은 개

별 연구자들이 제주에 관한 주제를 개별적으로 설정하여 개별적으로 훈련받은 전문분야의 지식을 통해서 제주의 현상들 또는 그와 관련된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었다. 소분야별로 연구자들이 특성화된 연구의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대체로 연구의 결과들은 개별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개별화된 제주에 관한 연구의 결과들을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 모아둔 것이 '濟州島研究'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제주도 연구회가 처음 출발했을 때는 민속학, 인류학, 국문학, 고고학 분야의 여섯 분이 주축으로 구성되었지만, 후일 회원의 참가와 전문연구자의 적극적인 충원과정에서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자들도 참가하였다.

지역연구가 주로 인문·사회분야의 전공자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경향은 제주를 주로 연구해 온 또 다른 연구소의 업적에서 잘 지적된다. 제주대학 부설의 탐라문화연구소에서 1980년과 1981년 2년에 걸쳐서 발행한 <耽羅文化>1호와 2호에 수록된 "解放後 濟州研究 概觀(김영돈, 신행철, 강영봉 1980 : 김종업, 권인혁, 고창석, 김용완 1981)의 목록을 보면 모두 어문학, 민속분야와 역사, 고고분야만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耽羅文化>3(1-109)에 수록된 '濟州研究의 現況과 展望'의 학술회의 내용에는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 사회학, 행정학 분야들만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기획의 목적이 반영된 결과이겠지만 당시만 해도 제주연구라고 하면 인문 사회 분야에서만 진행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근거에 지역학에 관심을 갖고 지역학의 방향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들에서도 앞에 언급한 것과 대동소이한 결론을 내고 있다. "지역학의 인식론적 기초로서 사회 문화를 구성하는 네 가지 소항목으로 제시된 것들로는 1) 지역과 문화, 2) 공동체의 상징적 구성, 3) 생활 문화 중심의 사회문화사에 대한 관심, 4) 경제와 문화의 통합(김성국 1995: 48-50)"이며, "지역학의 구체적인 과제들은 지역정체감 발견, 지역특징에 대한 설명, 지역사회의 발전(유철인 1996)"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자연과학 분야에서 달성한 제주에 관련된 연구들도 상당한 양이 축적되어 있다. 제주의 자연적인 현상을 기초로 하여 연구된 논문들은 엄연히 제주라는 지역에 국한된 연구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결과를 집적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과학(생물학, 지구과학, 해양학), 환경, 농업과학(작물, 원예, 축산, 농화학), 수산과학(어업, 증식, 양식)으로 구분하고, 참고문헌으로 911편의 문헌을 수록하였는데, 그 중에서 제주에 관한 것만 해도 900편 이상이 된다(이용필 1996).” 제주를 대상으로 한 기초과학의 연구성과들은 개별적인 과학분야의 보편적인 측면에 공허한 면이 있겠지만, 환경과 농업과학 그리고 수산과학과 같은 응용과학분야에서 축적된 연구들은 제주발전을 위한 직접적인 자료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유의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응용과학에서 제기된 기술적인 측면이 제주발전을 위해서 가시적인 공헌을 하려면 그것을 담아내는 조직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제주사회가 이러한 조직력을 길러내고 만들어 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제주의 사회문화 분야에서 관여해야 할 작업이다. 제주의 사회문화 분야를 연구한 결과가 기술을 담아 낼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방향으로 조율이 될 때, 자연과학 쪽에서 달성한 제주에 관한 연구결과가 제주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학은 인문 사회 분야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자연분야에까지 연장되어서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요구될 수 있다. 실제로 제주도 연구회에서는 그러한 욕구와 현실을 실천한 10여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濟州島研究> 제 1집(1984년)부터 제 12집(1995)까지에 수록된 논문류는 모두 185편인데, 그 중에서 인문·사회분야로 분류된 것이 128편(69.2%), 자연분야로 분류된 것이 57편(30.8%)이다.

제주라는 연구대상은 인문·사회분야 뿐만이 아니라 자연분야에서도 대단히 큰 매력을 갖고 있고 실질적인 연구결과들이 생산되었다. 제주도 연구의 경험으로 보아서 지역학이라는 것은 인문·사회분야의 독점물이 아님을 명백하게 증명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

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위의 숫자가 보이는 결과만을 놓고 단순히 생각해 볼 때, '인문 사회의 제주'가 따로 있고, '자연의 제주'가 따로 있는가? 제주는 인문·사회와 자연으로 분단된 모습이 현현된 것이다. 공연히 연구자들이 인문, 사회와 자연간의 벽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주라는 지역은 하나의 통합적인 실재다. 제주학은 이 통합성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문·사회와 자연 사이에 가로놓인 분단의 벽을 허물어야 진정으로 제주학이 구현될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역학 전체의 방향에 하나의 방법론적인 선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學이라는 것은 그것이 개별학문(a discipline)의 學이든, 관점(perspective)으로서의 學이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의 생명을 지닌 學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통합성을 달성한다는 것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간의 화학적 결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부분들간의 유기적 통합의 모습으로 하나의 전체가 구성될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통합성을 말한다. 지역학은 이러한 통합성을 구현할 때, 지역학으로서의 생명력을 갖게 된다. 지역의 인문학과 지역의 사회과학 그리고 지역의 자연과학이 별개로 존재할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지역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인문학으로 본 제주의 의미, 사회과학으로 본 제주의 성격, 자연과학으로 본 제주의 특성일 뿐이다.

지역학으로서의 제주학은 궁극적으로 統合科學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흔히 거론되는 學際性은 통합과학으로 가는 중간단계의 실험과정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제주지방학의 연구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하의 학술세미나(1996년 8월 30일)에서 세 가지 하위분야가 설정되었다 : '제주인문과학', '제주사회과학', '제주자연과학'. 나는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마도 유사한 느낌을 갖게 된 유철인 교수가 자신에게 주어진 제목인 '제주사회과학'을 약간 변경시켜서 논의를 전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그가 시도했던 '제주사회과학'으로부터의 피신도 얼마 멀리 가지 못한 것 같다. 그는

‘사회과학으로서의 제주학’이라는 안전지대로 피신하려 했지만 나의 생각으로는 ‘제주사회과학’이나 ‘사회과학으로서의 제주학’은 오십보 백보의 대동소이한 불안전 지대인 것 같다. 제주학이 하나의 지역학이란 전제를 한다면, 지역학을 사회과학이라는 범주 속에서만 다루는 것에 만족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지역이 사회과학적인 대상만으로 구성된 것인가, 아니면 지역이라는 것의 성격을 사회과학적인 범주만으로 빚어낼 수 있는 실재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 지역이라는 문제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다 벗어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사회과학이라는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에 집어넣은 지역학을 설정한다면, 거기에는 상당한 왜곡과 편견이 이미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지역학을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전통적인 학문의 삼분체계가 이끌어 온 이데올로기로부터 탈피해 보려는 것이다. 지역이라는 틀이 그러한 이데올로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시작한 점이 있다. 물론 용기가 없이 진행되었던 많은 과거의 지역학들은 종래의 매너리즘에 안주한 모습을 강하게 유전시키고 있다. 그러한 매너리즘이 본보기가 되어서 지역학의 특성을 사상시키는 면도 없지 않다.

이제 지역학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는 과감한 실험을 할 시기를 맞고 있다. 이미 도전은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학문의 삼분체제는 일부에서부터 상당한 정도로 무너져 가고 있다. 소위 학제성을 넘어선 통합과학의 이념이 구현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이란 것도 이제는 더 이상 갇힌 공간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의 눈앞에서 역사의 소용돌이로 현현되었다. 세상은 더 이상 동서로 양분된 냉전구도의 속박하는 틀이 아니다. 틀이 있다면 그것은 이합집산의 과정을 겪어서 새롭게 만들어 낸 개방의 틀이다. 이 두 가지 점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향하여 도전장을 내도록 유혹하고 있다. 제주라는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는 도전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주학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학은 개방의 틀이란 상황과 통합과학의 실천이라는 두 가지 견제 위에서 전개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조선 후기의 東國學은... 언어,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풍속, 예술, 금석, 의학, 과학, 지리, 인물, 초목, 금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해 지고, 지역적 범위도 전보다 확산되었다. 동국학의 중심은 한반도이지만 북으로는 고조선과 고구려와 발해의 강역이던 중국동북 지방과 만주, 그리고 남으로는 제주도, 강화도, 울릉도, 대마도 등 수많은 도서들이 수복되어야 할 강역 혹은 적극적으로 개척되어야 할 지역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한영우 1994: 5-6).” 따라서 제주학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인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특히 제주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제주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곳, 예를 들면 일본의 大阪과 서울 또는 부산의 영도 같은 지역에 집거하는 제주인들과 그 후예들에 관한 연구도 제주학의 범주 속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학의 시간적인 범위에는 선사시대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포함될 수밖에 없다. 제주에서 구현되어 온 삶의 연장이 시간 선상에서 연장되는 곳까지 제주학은 시간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시적으로 보면, 제주라는 지역도 그리 단순한 곳이 아니며 확실히 화해서 인식할 수 있는 좁은 곳이 아니다. 山南과 山北이 다른 면이 있고 동과 서가 다른 면이 지적된다. 언어의 억양에서도 차이가 나고, 사람들의 성품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진술이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대정과 목안 그리고 정의 등의 구분이 있으며, 유배지로서의 성격이 아직도 면면히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지리적으로는 해안과 중산간이라는 구분도 가능하다. 현대적인 상황의 변화로 지적할 수 있는 하위 구분의 필요성은 제주 내에도 이질적인 요인들이 많이 가미되었다. 육지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집단을 구성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고 이익집단의 목소리를 내려는 노력도 있다. 이들이 제주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제주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통합 또는 문화접변의 상황을 맞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제외될 수 없는 부분이다.

과거의 역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내려왔다고 생각되는 제주인들

의 대육지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독립국 시대의 탐라국과 유배지 및 변방과 해방 후 좌우의 대립의 극단적인 모습 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축적되어 온 대중앙, 대육지에 대한 제주 특유의 감정이 있다. 일종의 내부 식민주의적인 상황의 전개에 의해서 영글어진 것이라고 생각되는 역사적 정서의 덩어리,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IV. 결어 : 濟州學, 무엇인가?

1930년대 식민지 시대의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 朝鮮學을 부르짖었다. “안재홍의 조선학의 개념은... 광의로는 ‘온갖 방면으로 조선을 연구, 탐색하는 것’이요, 협의로는 ‘조선에 고유한 것, 조선문화의 특색, 조선의 전통을 천명하여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조선학의 문제, <신조선> 1934. 12)이라고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문화에 조선색을 짜넣는 것을 임무로 하는 것이 조선학이라 한다’(韓永愚 1994: 13). 당시는 일제의 침략에 의해서 민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족전통과 민족문화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조선학의 핵심으로 세우려는 의지들이 강했다.

우리에게는 지방화 세계화라는 두 가지 구도가 겹친 상황 속에서 제주학을 정의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맥락에서 제안되어 온 특정 지역학에 대한 개념 설정의 노력들을 일별해 볼 필요가 있다. “濟州島學”을 주장하는 견해에서 “자연의 현상”, “생활의 현상”, “정신의 현상”, “언어의 현상”, “민속의 현상”들의 조합으로 제주의 특성을 밝히는 것(진성기 1992: 9-14)이 제주학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록 그러한 제안이 아무런 방법도 없이 막연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제주의 전체를 조망하고자 하는 뜻에서는 제주학의 방향과 상당히 일치하는 점이 있다. 또 다

른 견해는 좀더 구체적인 언술로 나타난다. 서울학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역사, 지리, 문화, 도시, 건축, 경제, 자연환경, 생활 등 여러 분야에서 서울의 생성, 성장 발달 및 변천과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서울학(안두순 1991: 12)”이라고 한다.

“부산학이란 부산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현재적 과제를 분석하여, 부산의 특성과 정체성을 발굴하며, 나아가 미래의 부산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부산이 당면한 시대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논리를 공급할 수 있다.” 부산학 연구의 목적은 부산연구의 양적 활성화를 통하여 부산에 관한 자료의 축적과 부산연구의 질적 심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산연구의 체계화 즉 부산학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김성국 1995: 45)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 유사한 입장으로 정리된 제주학에 대한 견해는 지역학을 내세우는 것에는 사회, 지역의 역사성과 총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정체감에 대한 연구를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을 보다 나은 삶의 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강하게 보여진다(유철인 1996: 41). 따라서 제주학은 제주의 역사성과 총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와 정체감에 대해서 학제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고 그것은 제주의 발전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지역학이 지역의 발전 문제를 도외시해서는 성립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고, 지역학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서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연구 또는 지역학이란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삶의 방향 구현이라는 실천적인 문제도 안고 있다.

고층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질조사도 하고 건물을 올라갔을 때 풍향의 누계도 생각하고 고도 제한에 따른 문제도 고려하여 정밀한 설계를 하는 것이 먼저의 순서다. 공사 과정에서는 약간의 설계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다. 준공이 되기 전에 공사의 매 단계마다 감리도 받아야 한다. 완공이 되는 날까지 일을 해보아야 그 건물은 우리의 시각에 완벽하게 들어온다.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는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그 건물에 대한 이미지일 뿐이다. 일종의 가

상현실이다.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도면이란 것도 일종의 이미지요 가상현실이다.

우리는 지금 제주학이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면을 작성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지로서의 제주학을 설정해 놓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 과거에 유사한 경험 또는 추체험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사경험이나 추체험을 통해서 제주학이라는 건물의 설계도면을 각각 그려보는 것이다. 제주학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지금 우리들이 계획하고 있는 작업의 결과를 보자는 요구다.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만 가능성과 그것을 기초로 하여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과정의 가능성일 뿐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제주학이라는 고층건물이 필요성을 지녀야 하고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고 그 건물에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필연성과 정당성 그리고 공헌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주학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한 최종 판정도 제주학의 모습이 어느 정도 드러난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딜레마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삶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이지, 그 논의에 의해서 삶의 끝을 보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딜레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부르게 종지부를 찍지 못하는 논의도 논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참 고 문 헌

姜萬生

- 1996 “제주인문과학의 연구와 과제”, 濟州地方學의 研究와 發展 方案(’96제주방송인클럽 학술세미나, 1996년 8월 30일). 제주방송인클럽, pp. 17-33.

김성국

- 1995 “지역학으로성의 부산학 연구”, 지방화와 지역사회 연구방법론의 제문제(1995년도 학술발표대회, 1995년 10월 6,7일),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45-50.

金榮敦, 申幸撤, 姜榮峯

- 1980 “解放後 濟州研究 概觀 : 語文學, 民俗分野”, 耽羅文化 1 : 185-

金宗業, 權仁赫, 高昌錫, 金容宗

- 1981 “解放後 濟州研究 概觀(II) : 歷史, 考古分野”, 耽羅文化 2:285-

안두순

- 1994 “서울학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 및 그 한계”, 서울학 연구 서설, 안두순 편.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서울학연구소, pp. 3-26.

유철인

- 1996 “제주학으로서의 제주사회문화 연구”, 濟州地方學의 研究와 發展方案(’96제주방송인클럽 학술세미나), pp. 37-54.

이용필

- 1996 “濟州 自然科學의 研究와 評價”, 濟州地方學의 研究와 發展 方案. pp. 57-129.

張壽根

- 1984 “地域研究의 標本社會로서의 濟州島”, 濟州島 研究 1 : 7-18.

전경수

- 1990 “지역연구의 개념과 방법론”, 우리나라 지역연구 현황

문제점 활성화 방안연구 서울대학교 지역연구종합센터 편,
pp. 19-46.

조창현

1996 “세계화와 지방자치 그리고 제주도의 발전방향”,
제주사회발전과 지방자치, 제주국제협의회, 제주도의회 편,
서울 : 오름, pp. 7-18.

진성기

1962 제주도학 : 제 1집 개관편. 서울 : 인간사.

韓永愚

1994 “韓國學의 概念과 分野”, 한국학 연구 1 : 1-24(단국대
한국학 연구소).